



To Keep a Trace of Time
The Department Store

취재 신은지

건물이 지닌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The Department Store는 시간의 흐름이 만든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되살려 감각적이고 생기 넘치는 오피스 공간으로 자리한다.



Design / Squire and Partners
 Location / London, United Kingdom
 Area / 6,147㎡
 Photography / James Jones



1백여 년 전 백화점으로 시작한 The Department Store는 의회장 등으로 이용돼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했다.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축 그룹 Squire and Partners는 The Department Store를 개조해 그들의 활기 넘치는 업무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디자이너는 건물이 지닌 장소성과 역사성에 주목해 시간의 흔적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과거와 현재가 맞물린 감각적인 믹스매치로 영감을 주는 오피스를 완성했다.



도보를 따라 헤링본 타일을 시공해 강렬한 인상을 전한다.



오래된 페인트 마감을 제거하고 벽돌과 회벽을 그대로 드러낸 내부 공간.



리셉션 데스크 주변에 고급스러운 가구를 배치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지하부터 루프탑까지 총 6개 층을 갖춘 오피스는 외벽에 화려한 몰딩을 보존하고 1층 파사드를 블랙 컬러로 마감해 고풍스러우면서 모던한 느낌을 전한다. 도보에 흑백 헤링본 타일을 기다란 카펫처럼 시공해 강렬하고 입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화사하게 빛나는 1층 로비와 리셉션 공간은 러프한 골조와 천장 몰딩에서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나타나며, 모던 스타일의 가구를 배치해 유니크한 감각을 전한다. 오래된 우드 바닥을 살리고 일부 벽과 파티션은 블랙 컬러로 마감해 세련된 멋을 더한다. 로비 뒤편에는 직원들이 디자인 모델을 제작하고 보관하는 공간이 있으며 프로젝트를 전시하는 역할을 겸한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디자인 모델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공간.





그라피티를 아트웍으로 활용해 업무 공간에 유쾌함을 더한다.



2층에서 4층까지 이어지는 사무실은 업무 공간을 중앙에 배치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휴게 공간을 사이트에 구성했다. 내부를 아우르는 내추럴한 벽돌과 회벽은 그 자체로 다채로운 컬러와 무늬를 지녀 풍성한 공간감을 불어넣는다. 중심 업무 공간은 자작나무 데스크와 블랙 리노륨 프레임 선반으로 간결하게 채워 한결 캐주얼한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사람들이 남긴 그라피티를 아트웍으로 되살려 업무 공간에 활기 넘치는 스트릿 감성을 더한 점이 독특하다. 업무 공간 가장자리의 미팅룸은 회의에 오롯이 집중하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했다. 휴게 공간은 복도를 활용해 심플하게 구성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꾀했다.



천장 설비를 자연스럽게 노출해
인더스트리얼 무드를 자아낸다.



다채로운 무늬의 벽돌 벽과 발랄한 컬러의
액자가 공간 속 활기를 더한다.



그라피티를 보존해 데커레이션 요소로 활용했다.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는 내추럴한 벽.



벽 위 강렬한 이미지의 그래피티로 공간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한다.



복도 중간에 큼직한 테이블을 배치해 언제든지 편하게 회의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장 일부를 오픈하고 층 사이를 보이드로 이어 입체적인 공간감을 형성한다.



미팅룸은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했다.



영롱한 구리 마감을 포인트로 한 휴게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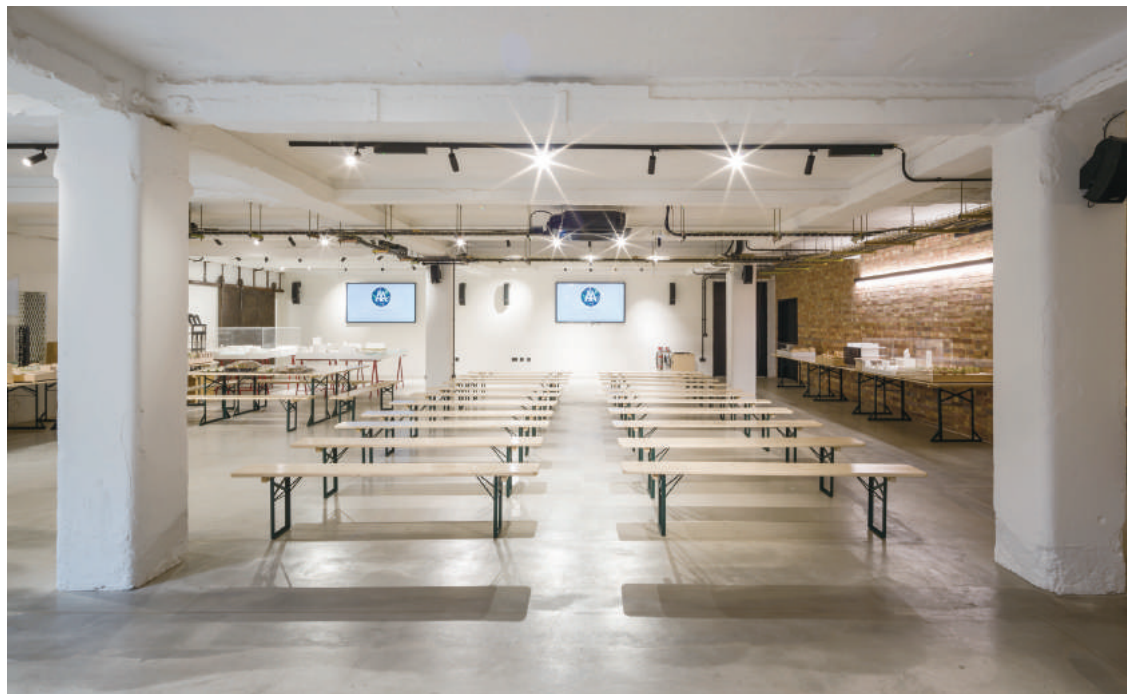


심플한 구조의 지하 공간은 탁 트인 천장으로
한층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더불어 사무 공간 외 지하와 옥상 층에 이벤트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유쾌한 업무 환경을 갖췄다. 1층에서 빈티지한 철제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지하 공간이 나타나는데, 넓게 오픈한 홀에 간결한 라인의 벤치를 채워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전시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



빈티지한 철제 상판의 계단.



지하 공간은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전시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



러그의 그린 컬러 패턴과 벽을 큼직하게 채운 구리 패널은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쾌적한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탁 트인 테라스

기존 건물에 새로 추가한 루프탑 공간은 전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면적으로 레스토랑과 바 그리고 테라스가 자리한다. 목재로 틀을 짠 지붕으로 한층 부드럽고 편안한 무드를 만들며 블랙 컬러 프레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한편 승강기 통로였던 계단실은 벽 위 마호가니 우드와 그린 컬러 타일을 복원해 앤티크 무드를 극대화하고 당대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을 드러낸다.

시간의 곁이 아름다운 The Department Store는 본연의 개성적인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냈다. 유니크한 디자인을 살려 직원들의 감성을 북돋우는 오피스는 도시 속 역사를 간직한 랜드마크로 굳건히 자리매김한다. □



섬세한 앤티크 감성을 전하는 계단실

